



[금융] KB vs 신한 리딩뱅크 쟁탈전 KB가 웃나 06



Economy

코스피	2064.71 (+39.44)	코스닥	679.74 (+11.25)
금리 (우대금리)	1.81 (0.00)	환율 (원/달러)	1122.10 (-2.00) (9일)

기업실적 추락하는데 경영압박은 거세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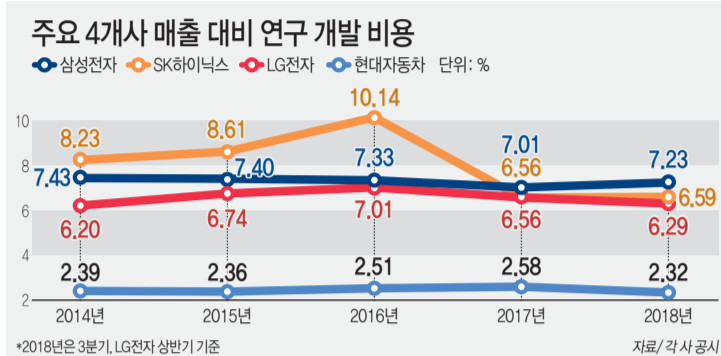
韓 경제 비상구가 안보인다

반도체 산업 침체 본격화 삼성·LG 동반 '어닝쇼크' 가전·IT 시장도 되서리 잇단 규제에 기업들 위축

국내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엔진'으로 불리던 반도체 산업 침체가 본격화된 데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4분기 '어닝 쇼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 오너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발의와 규제를 끊임 없이 내놓으며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쇼크' 빠진 산업계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8일 발표한 4분기 잠정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였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성적을 발표한 것. 이미 전문가들은 반도체 시장 하락을 점쳐왔지만 예상치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결과에 급하게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다.



연도	실업률(%)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14	3.5	93만 9000명	1595만 9000명
2015	3.6	97만 6000명	1608만 6000명
2016	3.7	100만 9000명	1618만 7000명
2017	3.7	102만 3000명	1618만 3000명
2018	3.8	107만 3000명	1628만 7000명

가전 산업도 되서리를 맞았다. LG전자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원인은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안 심리와 신용시장 경기 둔화 등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처럼 올해 가전 산업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IT 시장은 이미 초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애플도 모바일 사업 비중을 줄여나갈 정도다. 올해 5G와 폴더블폰 등 신형 제품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지만, 실제 실적을 올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위기'의 현실화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줄어든 484억 6000만 달러였다. 반도체 수출이 8.3%나 줄어든 영향이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0~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중간 무

역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도 마무리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 투자도 주춤하다.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은 지난해보다 연구개발 비용을 소폭 줄인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이 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다시 투자를 늘리는데 성공했다.

고용률 감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실업률은 3.8%로 또 다시 0.1%p 상승했다. 실업자도 107만 3000명으로 4.8% 증가했다. 전년 증가율(1.4%)보다 가팔라졌다.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1628만 7000명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계가 지난 해 비정규직을 대거 직접 고용하면서 고용 인력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 당장 재계가 신규채용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에는 채용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아래)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하만과 개발한 미래형 커넥티드카 조종석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람객 북적 '삼성시티' 미래 라이프스타일 제시



<관련기사 3, 4, 5면>

삼성전자 '디지털 콕핏' 등 AI·5G 기반 혁신 대거 공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길에는 가로등과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멀리 불이 켜져 있는 빌딩도 보인다. 아외가 아니다. 'CES 2019'의 삼성전자 전시 공간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열리는 CES 2019에 참가해 '삼성시티'라는 콘셉트로 부스를 꾸몄다.

CES 2019 개막일인 8일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다. 입구에서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줄지어 내부로 들어갔고 전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입구의 대형 화면에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비전을 담은 영상이 반복해서 보여줬다. 8K TV, 패밀리허브 냉장고, 인공지능 스피커 갤럭시 홈 등 혁신제품의 모습이 나타났다.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Welcome to Samsung City(삼성시티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관람객들을 맞이해준다. 전시장은 크게 QLED 8K, 더 월(The Wall), 5G, 갤럭시, 삼성 북, 전장, 빅스비 라이브 스테이지, 빅스비 경험 등 8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오른 편으로 삼성의 98인치 Q

LED 8K TV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번 CES에서 처음 공개된 제품이다. 이로써 QLED 8K는 65, 75, 82, 85, 98인치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전시 안내자는 "삼성 QLED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균일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옆쪽에는 '더 프레임' 여러 대가 벽에 걸려있다. 멀리서 보면 TV 전시장이 아닌 미술관을 연상케 한다. 1000여 개의 그림이나 사진을 액자처럼 보여주는 더 프레임의 특징 탓이다. 마이크로LED가 적용된 219인치의 더 월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화질을 감상하고 있었다.

5G 공간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웰컴 테크 서밋에서 공개한 5G 스마트폰 시제품이 중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주위로 5G 기지국부터 단말까지 준비됐다는 걸 보여주며 5G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갤럭시 노트9도 전시돼 관람객들이 노트펜을 체험하고 있었다.

'빅스비' 라이브 스테이지에서는 빅스비의 새로운 버전인 뉴 빅스비 시연이 이뤄졌다. 빅스비에 "좋은 아침이야"라고 말하자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블라인드, 조명, 공기청정기가 환경에 맞게 조정됐다. 세탁기, 건조기와 의류관리 가전인 에어드레서도 전시됐다.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 특성에 맞춘 에어드레서의 출시 시점을 검토 중이다. <3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은 기자 yuni2514@

햇볕 안드는 고용텃밭... 고심 깊어지는 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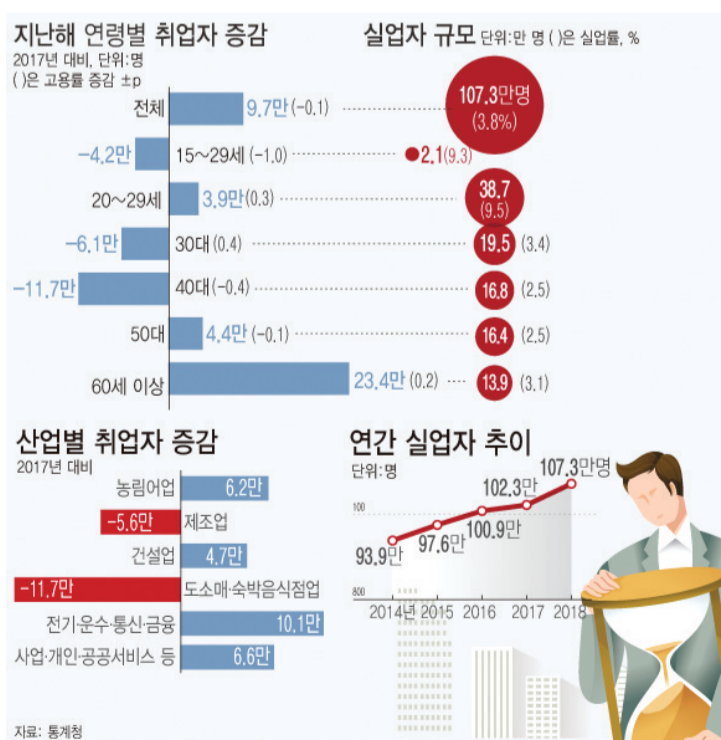
작년 실업자 수 107.3만명 17년 만에 실업률 최고치 靑, 취업개선 팔 걷어붙여

"고용률 올리기에 매진합시다."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비서실장으로의 첫 현안 점검회의' 때 참석자들을 향해 당부한 발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당시 국정기획상황실로부터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등 고용지표 전반을 보고 받았다. 노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률이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이 현재 고용동향과 관련해 깊은 고심을 드러낸 것처럼, 국내 일자리 시장은 햇볕이 들지 않고 얼어붙은 실정이다. 취업자 변화를 기준으로 본 지난해 취업자 수가 이를 방증한다.

통계청은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는 2682만 2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9만 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09년 당시에는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이 8만 7000명에 그쳤다. 고용동향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관련기사 2면>

자 증가 폭'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실업자 수가 107만 3000명으로 집계된 게 그렇다. 100만명을 웃도는 실업자 수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더불어 작년 실업률은 3.8%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이는 4.0%를 기록한 2001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기도 하다.

고용동향의 흐름이 좋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물들이 '취업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임명 인사'를 위해 집무실을 찾은 노 실장에게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며 "당당하고 투명하게 경제인들을 만나달라.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을 살려 각종(경제) 정책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음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9일 전했다.

이른바 '경제컨트론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통계청의 이번 발표를 인지하고 "올해 일자리 15만개 만들기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청년 취업준비생들과 만나 "통계청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